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관 | 컨슈머인사이트 | 이 메 일 | kimmh@consumerinsight.kr |
| 문 의 | 김민화 연구위원 | 연 락 처 | 02) 6004-7643 |
| 배 포 일 | 2022년 4월 28일(목) 배포 | 매 수 | 총 5매 |

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, 마케팅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

컨슈머인사이트, 해외여행 계획·지출의향 추이 비교

- 해외여행 큰손, 여성에서 남성으로...
- “6개월 내 계획 있다” 남성이 여성의 1.4배
- 20대 남성이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높아
- ‘이대남’, ‘이대녀’ 제치고 최대 수요층으로 부상
- ‘이대녀’는 60대이상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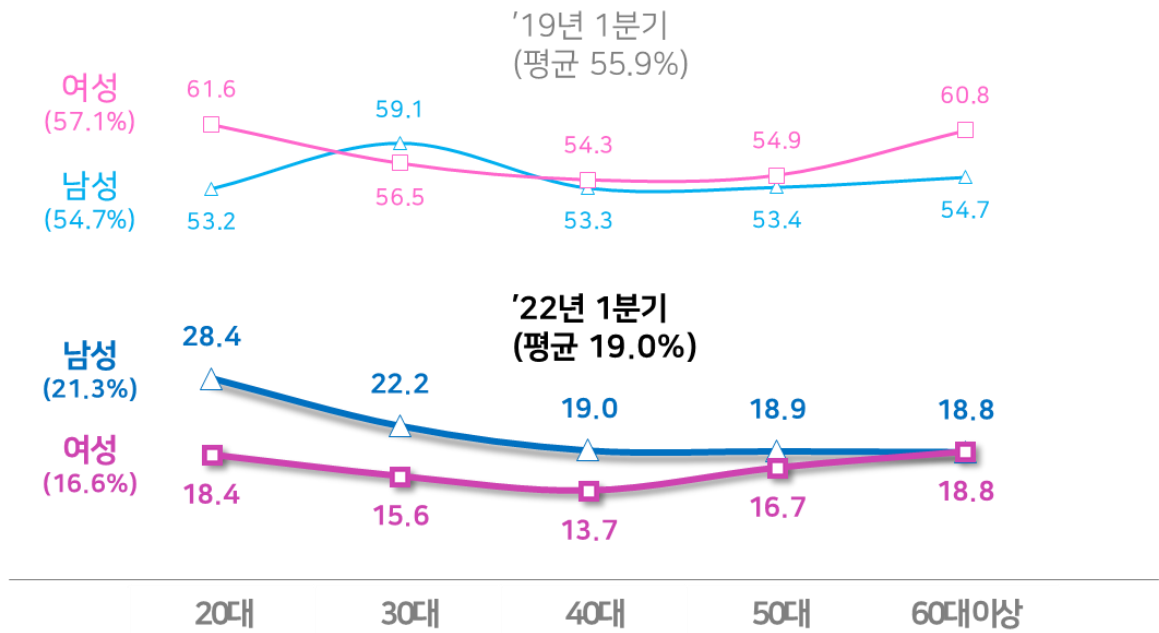
남성이 해외여행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. 짝 막혔던 해외여행의 물꼬가 열리면서 대부분 계층에서 여행심리가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성보다 남성,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의 기세가 압도적이다. 과거 20대 여성이 이끌던 해외여행 시장에 엄청난 반전이 여물고 있다.

데이터융복합·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'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(매주 500명, 연간 2만6000명)'에서 소비자에게 향후 6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지, 1년 내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은 어떤 지를 묻고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했다.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,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마켓C(www.bigdata-culture.kr)에서 공개되고 있다.

■ 여행계획률, 여성 우위→남성 우위로 역전

6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(여행계획률)은 올해 1분기 평균 19%로 5명 중 1명꼴이었다.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의 55.9%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이지만 1년 전 같은 기간(12.5%)보다는 1.5배 이상 늘었다[그림1].

[그림1] 성x연령대별 해외여행 계획률 [6개월 이내 있다,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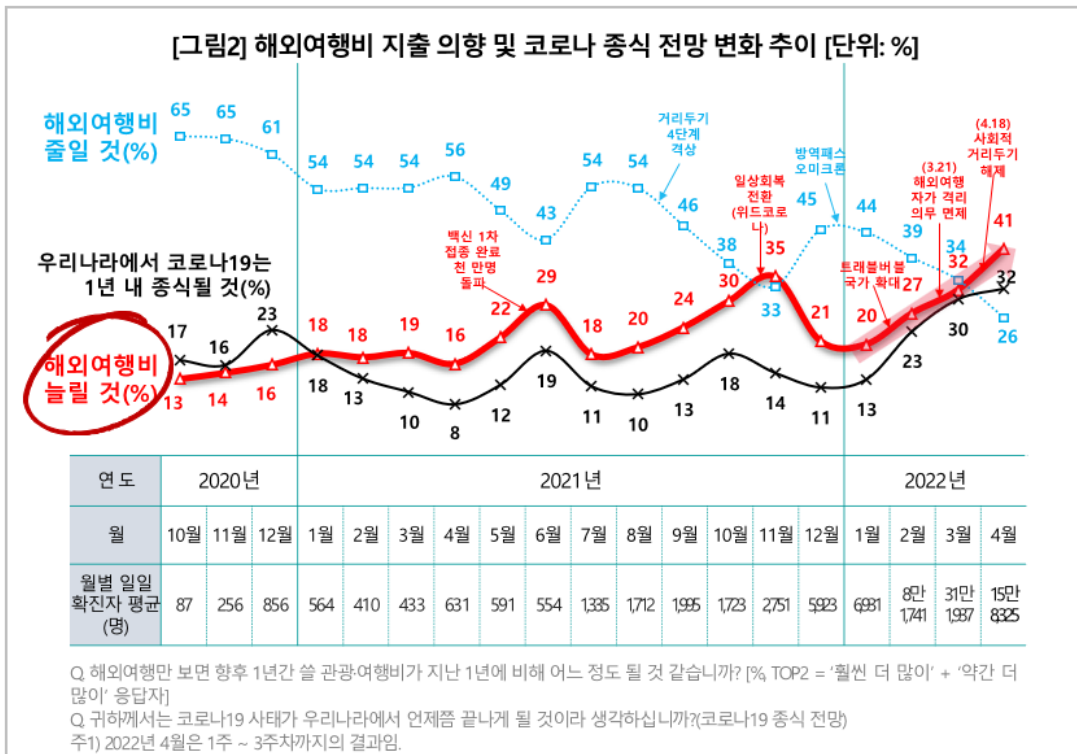
Q. 귀하께서는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'그렇다' 응답
 주1) 2019년 1분기, 2022년 1분기 사례수는 각각 6,000명

성별로는 남성(21.3%)이 여성(15.3%)보다 많아 1.4 배에 달했고 연령대별로는 20 대(23.7%)가 가장 높았다. 같은 20 대라도 남성이 10 명 중 3 명꼴(28.4%)로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여성은 5 명 중 1 명꼴(18.4%)에 그쳤다. 코로나 이전 20 대 남성은 모든 성·연령층 중 최하위에 해당했으나, 이제 최상위로 급부상했다. 반면 20 대 여성은 모든 남성, 그리고 60 대 여성(18.8%)보다도 낮아졌다. 30 대 남성(22.2%)의 여행심리는 여전히 뜨거웠다.

코로나 팬데믹 중 20 대 남성과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? 20 대 남성은 학업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생업과 취업의 압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세대다. 반면 20 대 여성은 과거 가장 낙관적인 계층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삶의 질 인식도 20 대 남성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(참고. [벼랑끝 이대녀 "이대남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"](#)). 이들은 대면접촉 기피와 위생 수칙에도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. 일자리 부족,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감염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외여행을 망설이며 좀 더 관망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.

■ 해외여행비 지출의향, 최근 석 달 새 2배로

실제 해외여행 계획률이 아직 제한적인 것과 달리 장기적인 해외여행 심리(여행비 지출의향)는 이미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했다. 앞으로 1년간 쓸 해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 '늘어날 것(많이+약간)'이라는 응답이 4월 현재 41%에 도달했다(4월 1주차 37.2%, 2주차 41.8%, 3주차 43.4%). 지난 1월의 20%에서 3개월만에 2배로 급팽창한 셈이다. 이는 위드코로나 기대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의 35%를 훌쩍 넘어선 것은 물론 코로나 전인 2019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치다[그림 2].



코로나 이전 수년 동안 해외여행비 지출의향은 40% 초중반대를 유지했으나 경기침체, 노재팬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9.2%까지 떨어졌고(참고. [해외여행 소비심리 급랭, 국내는?](#))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는 10%대로 폭락했었다.

■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정부 조치 영향 커

해외여행비 지출의향은 코로나 종식 전망과 상관관계가 높았다. 코로나가 1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지난 2020년 6월 처음 조사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%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달에는 32%로 최고치를 찍었다. 해외여행비 지출 의향과 동반 상승·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.

최근 해외여행 심리는 연초 잇단 트래블버블 확산과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(3 월 21 일), 거리두기 해제(4 월 18 일) 등의 정부 조치와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상승 동력이 강하다. 2년 넘게 금지된 욕망을 향한 갈증과 화풀이 소비 심리도 폭발 대기 상황이다.

여행심리의 폭발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. 여성보다는 남성, 남성 중에서도 30~40대보다는 20대가 큰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.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외여행 산업의 기본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.

[첨부] 해외여행계획률 변화 추이

| 구 분 | | 22년 1분기 (A) (1월~3월) | 21년 1분기 (B) (1월~3월) | 22-21 증감률 (%p, A-B) | 19년 1분기 (1월~3월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사례수 | | 6,000 | 6,000 | - | 6,000 |
| 전 체 | | 19.0 | 12.4 | +6.6 | 55.9 |
| 성별 | 남성 | 21.3 | 15.3 | +6.0 | 54.7 |
| | 여성 | 16.6 | 9.4 | +7.2 | 57.1 |
| 연령 | 20대 | 23.7 | 13.7 | +10.0 | 57.2 |
| | 30대 | 19.0 | 14.1 | +4.9 | 57.8 |
| | 40대 | 16.4 | 11.4 | +5.0 | 53.8 |
| | 50대 | 17.8 | 10.5 | +7.3 | 54.1 |
| | 60세 이상 | 18.8 | 13.0 | +5.8 | 57.8 |
| 성by 연령 | 남20대 | 28.4 | 18.0 | +10.3 | 53.2 |
| | 남30대 | 22.2 | 18.8 | +3.5 | 59.1 |
| | 남40대 | 19.0 | 12.5 | +6.5 | 53.3 |
| | 남50대 | 18.9 | 11.8 | +7.0 | 53.4 |
| | 남60대 이상 | 18.8 | 17.1 | +1.7 | 54.7 |
| | 여20대 | 18.4 | 9.0 | +9.4 | 61.6 |
| | 여30대 | 15.6 | 9.2 | +6.4 | 56.5 |
| | 여40대 | 13.7 | 10.4 | +3.3 | 54.3 |
| | 여50대 | 16.7 | 9.1 | +7.6 | 54.9 |
| | 여60대 이상 | 18.8 | 9.0 | +9.8 | 60.8 |
| 가구원 구성 | 미혼 | 20.4 | 13.0 | +7.4 | 54.7 |
| | 신혼기 | 19.2 | 11.0 | +8.2 | 59.1 |
| | 자녀유아&성장 | 17.8 | 13.0 | +4.8 | 57.3 |
| | 자녀성장 | 20.4 | 10.2 | +10.2 | 54.0 |
| | 자녀성인 | 17.4 | 12.6 | +4.8 | 57.4 |
| 가구 월 소득 | 자녀독립 | 17.8 | 10.9 | +6.9 | 54.1 |
| | 300만원 미만 | 18.6 | 12.8 | +5.8 | 38.3 |
| | 300~500만원 미만 | 14.8 | 11.7 | +3.1 | 49.9 |
| | 500~700만원 미만 | 19.9 | 12.3 | +7.6 | 61.3 |
| 700만원 이상 | 22.4 | 13.9 | +8.5 | 69.0 | |

Q. 귀하께서는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(여행계획 보유율) ['그렇다' 응답자]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**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**100% 모바일 기반**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`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`를 바탕으로 한다.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, 2017-2021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

kimmh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43

이흥인 컨슈머인사이트 대리

leehi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59